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12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참치 어업, VR 체험으로 인재 유치 강화3
2. 참치 관리, 광역조정위원회 전문 부회 첫 회의 열려 4

- 일본가다랑어·참치어협은 수산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와 어업인 모집 행사에서 VR 고글을 사용해 마그로 어업 체험을 제공하며, 지원자를 늘리고 있음.
 - VR 고글을 착용하면 선상에서 360도 시야로 마그로를 잡는 모습과 선원들의 작업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음.
 - VR 체험 후 학생들은 "위험한 이미지가 있었지만, 선원들이 협력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"고 반응하며, 지원자가 증가했음.
 - 장기 항해를 포함한 원양 어업에서 젊은 어업인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SNS 사용 제한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해 '스타링크' 위성 통신 서비스 도입이 제안됨.
 - 원양 참치 어업의 일본인 선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년 전의 5분의 1로 줄었고, 젊은 어업인의 확보가 긴급한 상황임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1)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8327> ('24년 12월 26일 검색)

- 수산청은 12일 도쿄에서 태평양, 일본해·큐슈 서부, 세토내해의 각 광역 어업 조정 위원회(광조위) 내 '흑참치 낚시 전문 부회' 첫 공동 회의를 개최.
 - 낚시 단체는 현재의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어획 보고 기한을 단축하는 제안을 하였으며, 자원 관리에 대한 지지와 함께 "납득할 수 있는 규칙"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음.
 - 최근 어획량이 빠르게 쌓여, 시준별 어획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, 대형 어종에 대한 1인 1일 1마리 제한(백 리미트) 및 '캐치 앤드 릴리스' 규칙도 함께 논의됐음.
 - 어획 기간 세분화, 리미트 강화, 생존 및 사망률을 고려한 어획 금지 기간 설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낚시와 자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. 하지만 "납득할 수 있는" 규칙 설정이 중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.
 - 낚시객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으며, 수산청은 전국 조직을 통해 어획 쿼터 관리가 경쟁을 피하고, 각 어업 협회에서 엄격한 수량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8371> ('24년 12월 26일 검색)